

# 세종대등 31곳 연구소에 63억 박사급 600명 연구수행 지원

## 교육부, 이공학 학술지원 과제 선정

연구소당 9년간 年 평균 7억 지원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 목표 국가 차원에서 연구자 보호·육성



교육부 세종청사

세종대 '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 등 31개 대학 연구소에 연간 7억원 씩 최대 9년 간 총 63억원 내외의 정부 지원금이 투자되고,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는 박사급 연구자 1587명, 지역대학 연구자와 국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 연구자 578명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7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 역량과 운영 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중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과 보호·소외분야 연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박사과정생부터 박사학위 취득자, 신진 연구 인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지원해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연구과제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 학문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연구자 역량과 연구주제의 창의성·도전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도전연구는 올해 1100개 과제로 전년 대비 39.1% 확대했다.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는 올해 연구소 운영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신청한 98개 연구소 중 최종 31개 연구소가 선정됐다. 이들 연구소에는 연구소당 최대 9년(3+3+3)간 연 평균 7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특히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경희대), '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세종대),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충북대) 등 인공지능(AI)·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소가 선정돼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천대 가천약학연구원, 건국대 항공우주 설계·인증 연구소, 경기대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경상대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고려대 초대형건설기술 연구소 등도 이 사업에 선정됐다.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문 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토록하는 등 대학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신규로 도입된 기초역량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는 올해 52개 센터 신청을 받아 '바이오나노융합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가천대) 등 13개 센터가 선정됐다. 이들 센터에는 최대 6년(3+3)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간 3억~6억원이 지원된다.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대학 연구자 지원 사업에는 올해부터 연구자가 직접 연구분야를 지정토록 한 가운데, '한글필적 감정 연구', '암흑우주와 대안 중력이론 검증연구' 등 78개 과제가 선정돼, 최소 3년 이상 지원된다.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선 올해 500명의 지역대학 우수연구자가 선정돼 연구비 5000만원 외에도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돼 지역 대학의 연구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보훈가족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실수



문명철 기자 국방 칼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국보훈의달 6월이면 정부의 '실수'가 매년 되풀이된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이 정부의 되풀이되는 실수로 되돌아 갔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등의 추도하는 내용을 국방부 SNS(사회관계망)에 올렸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가 명확해졌음에도, 국방부는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올린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기사는 수정을 요구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초안을 주며 수정도 해주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에 알렸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은 침묵했다.

기사가 전송된 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이 모 대령은 기사를 끌고 대변인실로 갔다. 대변인과 기자, 이 모 대령 세명만이 있는 공간에서 최 대변인은 "이 기사 나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말했다.

기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이 유출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원고까지 드리며 입장을 물었는데 돌연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의 실수가 맞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면 안되니 무조건 삭제해 달라"는 입장만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내려졌지만, 국방부의 실수는 이어졌다. 기자가 기자직위를 잃고 난 7월에 한 시민이 해당 기사 삭제 이유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꺼리낌 없이 거짓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은 "제2연평해전 16주기 포스터에 전사한 6인의 전우를 실무자의 실수로 '순직'으로 표현했다"면서 "기사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국방일보 팩트체크'가 언급된 내용이 희화될 소지가 있어 수정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처음부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야 할 일이 있었을까. 이듬해 2019년 6월 5일 현충일 앞두고 청와대에 초청된 보훈가족들에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팸플릿을 돌렸다. 그들의 가족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의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제외됐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자 지난 5일 국가보훈처는 '실수'라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회와 생존장병 대표와 협의를 거쳐 기존 참석 규모 내에서 참석자를 조정해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훈처가 매년 현충일 행사에 초대받았던 이들을 초대하지 않고 코로나19 희생자 가족을 참석시켰다고 보도한바 있다. 1만명 가량 초대했던 인원들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특정 유가족과 생존자만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것이 현충일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닐까.

조국의 광복,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영해수호임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인데 말이다. 문 대통령의 조화가 서해수호관련 전사자 묘소 중 천안함 묘소에만 세워진 모습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captinm@

## 삼육대 약대, 2022년 입시부터 '통합 6년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환 약학교육 전문성·경쟁력 제고



삼육대 약학대학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한다 /삼육대

삼육대 약학대학은 현재 고등학교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부터 '2+4년제' 학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한다.

이는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대학 학제인 '2+4년제'는 타 대학이나 학과에서 2년을 마친 학생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고 약대에 편입해 4년을 더 공부하는 방식이다. 통합 6년제로 바뀌면 1학

년(2+4년제)의 편입을 병행해 학생을 선발한다.

한편 삼육대 2022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6년제 약대 선발 인원은 총 37명이다.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4명 ▲학생부교과우수자 8명 ▲재림교회회복희자추천 6명 ▲기회균형 3명 ▲특수교육대상자 2명, 정시모집 다군에서 ▲일반전형 12명 ▲농어촌 2명 등이다.

입학전형 주요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해당 학년도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수시 학종전형서 '자기추천' 확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올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403명)의 65%(2212명)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면서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의 모집인원을 확대해 수험생들의 문호를 더 넓혔다. 또 수시 전형 간 중복지원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한다.

7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오는 9월24일~28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건국대학교는 올해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을 1679명으로 2020년(1657명)보다 22명 늘렸다. 건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은 지난해보다 52명이 증가한 850명을 선발한다. KU자기추천은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으로 1

/한용수 기자

## 산자부, 해외 기술규제 극복 논문공모

### '제5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는 논문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함께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TBT 논문공모전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수출기업의 TBT 극복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 TBT 정책에 대한 제언 활성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 참가신청 접수는 7월24일까지, 논문은 10월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참가대상은 전국대학 학부나 대학원생 개인 또는 2인1팀으로 대학 간 연계 참가도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